



이 천 용
「숲과 문화」 편집인

숲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숲이 얼마나 중요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인상깊었던 숲은 어디인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숲의 중요성은 그런대로 잘 대답했지만 외국 숲에 대한 기억은 갑작스런 질문이라 언뜻 중미 '온두라스'에 갔을 때, 드넓게 펼쳐있는 숲이 지평선과 만나는 광경과 황폐된 숲이 뇌리에 스쳐, 아름다운 광경이야 표현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황폐되어 가는 숲이 안타까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재차 독일 등을 들먹이며 아름다운 숲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길래 비로소 바로 이것이 숲을 보는 경지의 차이구나를 느꼈다. 일반적으로 숲이라 하면 오래되고 굵은 나무가 짝 들어차 있는 곳을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숲은 대부분 어린나무로 구성되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잘 가꾼 외국의 숲은 보기에든 시원하고, 경제성

이 있어, 여러 가지로 만족시켜 준다. 그러나 아름다운 숲의 진정한 의미는 아름답디 침엽수가 팍차 있는 숲만이 아니라, 철따라 생동하는 자연을 보여주는 주변의 숲도 포함되어야 한다. 숲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숲을 잘 가꾸기도 하거니와 추억이 깃든 동산숲 등도 중요하다. 숲을 잘 가꾸어서 경제적으로 쓸 곳과 자연 그대로 놔둘 곳을 명백히 구분하는 해안을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숲을 늘 곁에 두면서 지

낸 세월이 흐를수록 숲을 보는 눈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숲과 함께 10년을 살고 보니, 지방 출장때 버스나 기차 차장 밖으로 보이는 숲의 모습이 눈에 잘 보였다. 산의 능선을 따라서 있는 나무들—옴폭 들어간 계곡의 나무는 키가 크고 산봉우리의 나무는 작아도 균형이 잡힌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5년쯤 지나니 차속에서 산의 나무 하나하나를 살필 수 있어서, 소나무의 붉은 줄기와 연초록의 잎이 조화된 곳을





▲부드러운 능선을 보이는 운길산의 가을

지나면 감탄사를 낼 줄 알고,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받아 나무 하나하나가 회색으로 변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저절로 표출된다. 멋들어진 숲 사이로 난 도로를 천천히 운전하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추월해가는 운전자들의 여유 없고, 숲을 볼 줄 모름을 한탄하기도 한다. 정말 아는 것만큼, 보이는 숲의 세계는 조물주가 생성한 자연의 극치임을 느끼게 되면서 숲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는 듯하다. 반면 보통 사람들의 숲은 저편에 그냥 있고, 오감(五感)을 통한 것이 아닌, 그저 눈으로 보이는 단순한 것 같다. 단순히 공기가 맑고, 경치가 아름답다는 것 이외에도 숲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한다. 풀과 나무의 향기가 젖어 있는 공기가 코를 자극하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 새소리, 벌레소리가 귀를 자극하며, 바위절벽에 걸린 소나무가 눈을 즐겁게 하는 등 모든 숲속의 물질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

고, 부드러움을 주어 '해방감'과 '자유감'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숲의 중요성'은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숲은 계절에 따라 다른 경관을 연출한다. 흔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철쭉제'를 통하여 꽃을 보는 것보다는 숲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계절에 맞는 산을 찾아서 「봄 백양, 가을 내장」이라는 말과 같이 잊이 나는 시기의 백양숲 여행을 한다

든지, 겨울에는 눈 덮인 설악산이나 태백산 숲을 찾는다든지, 여름에는 물이 풍부하고 찬 계방산 숲을 찾아야 제맛이다.

잎이 막 나기 시작하는 봄에 차를 타고 숲을 멀리서 보자. 외경심을 주는 큰 산을 보러 멀리 갈 것도 없이 어머니와 같은 포근한 느낌을 주는 봄 숲은 남쪽 사면에 짙은 연두색을 보이나, 북쪽은 아직 연한 색의 잎이 있거나 또는 잎이 나지 않아 회색을 띠고 있으면서 숲 전체가 수채화를 그린 것 같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은 무표정하다고 하지만 숲의 표정은 너무 많다. 산허리와 산등성에는 낡은 겨울 옷을 벗어 버리고, 봄 옷을 입은 낙엽송, 척박한 땅에서 곳곳이 녹색을 지키는 리기다소나무, 그 사이로 뽕죽이 얼굴을 내민 신갈나무, 양중맞은 작은 잎을 내어 바람에 살랑거리면서 가을 단풍과는 다른 누런색을 피어내고 있는 넓은 잎나무들. 보면 볼 수록 여성다움을 느끼게 하고



▲눈덮인 능선이 장관을 이룬 태백산



▲가지에 눈이 덮여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한없는 부러움과 사랑을 갖게 한다. 산등줄기를 붕긋붕긋 이룬 연록의 경관 사이에 혼자 돌 틈에서 있는 소나무는 제멋을 찾지 못하나, 새 가지에 달린 소나무잎을 훑어서 맛보는 할마시를 산림보호한다며 잔소리하기에는 그 광경이 너무 정겹다. 산자락에는 균형잡힌 원뿔모양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낙우송이 고고히 서있고, 호수 부근의 숲은 자기를 물속에 투영하면서 마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르는 것 같다.

여름 숲이 주는 느낌은 또 어떠한가? 강릉에서 속초로 가는 무더운 여름 해변 여행 길에서 시원한 감을 주는 것은 산 쪽에서 있는 붉은 줄기의 소나무와 해변 쪽의 잎이 길며 뺨뺨한 곰솔이다. 그 경치는 풀과 작은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자명하다. 나무들도 심은 것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어서 짜임새는 있지만 인공의 냄새가 난다. 그러나, 자연

스럽게 구부러지고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나무껍질의 색깔을 보이는 자연 숲은 눈여겨 보아야 멋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자연 속에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만 있으면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모두의 소원 이리라. 차창으로 스치는 20년 된 소나무들이 뻑뻑히 차 있는 숲은 얼핏 보기에 울창해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 붙어있으니 '얼마나 더 울까?' 하고 생각해 본다. 자기의 생장을 위해, 더위를 식히려고 많은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에서 물을 날려 보내니 사람들이 쓸 물도 그만큼 줄어 든다. 적어도 나무 사이가 2.5미터는 되어야 한다. 숲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 즉, 잎이 서로 맞닿아 울폐될 때, 나무를 솎아 주어야 한다. 가지가 가장 넓게 자란 시기를 놓치면 잎이 달려 있는 부분의 폭이 좁아져 광합성 작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흙 속의 양분과

수분쟁탈전이 벌어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데 그 흔적-죽은 가지를 보면 가장 넓게 퍼진 가지는 죽어버리고, 그 위에는 폭이 좁은 산 가지가 달려있다. 넓게 퍼져 있을 때, 솎아 주어야 마음 놓고 옆으로 퍼질 공간이 생길텐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숲의 형편이 이러하니 인공적으로 가꾸어야 할 필연성이 있다.

숲의 보전적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숲의 보전은 아득하다. 선진임업국인 독일에서 10여 년간 유학 생활을 한, 동료의 말을 빌리면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숲을 어떻게 가꾸면 좋아진다는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숲에다 오물을 버리고, 함부로 훼손하고, 골프장이나 공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쉽게 바꾸고, 숲을 개발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녹지자연도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사용하고 면죄부를 만드는 등 반 보전적 행태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임업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숲을 보는 시각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숲에 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누구든지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숲을 들여다 본다면, 굳이 작가나 시인이 아니더라도 숲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어 '숲'은 지켜야 할, 가꾸어야 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